

터키 한인역사

터키 소개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고 있는 나라로서 국토면적 78 만 3,562 km²(CIA 기준, 남한의 약 8 배, 한반도의 4 배), 인구 8,027 만 4,604 명(2016 년 기준)의 큰 나라이다. 주변의 터키계 민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1 억 5 천에 달한다. 지정학적으로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하여 다양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국토 전체에서 다양한 시대의 여러 고대 유적들이 현재도 남아있다.

터키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서진을 계속하여 1453 년 급기야 오스만 투르크 족이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을 함락하게 되고 이어 북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화려한 오스만 제국의 문화를 꽃 피우게 된다. 1 차 세계대전 이후 1923 년 아타투르크에 의해 첫 공화정이 설립되었다. 종교는 이슬람으로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언어는 터키어로서 한국어와 동일한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한 언어로서 첨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음식 문화는 중국, 프랑스 음식과 더불어 세계 3 대 요리에 속할 정도로 유명하다. 산업은 농업과 관광업이 주를 이룬다. GDP 는 2019 년 10 월 743,708USD 달러로서 19 위를 기록하고 있다.

태동기 1949-1988년

고대 한민족과의 인연으로는 고구려와 함께 중국 당나라를 대항해 싸웠던 돌궐족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대사에서는 1950 년 한국 전쟁 당시 NATO 가입을 계기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으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총 3 천 216 명의 사상자를 낸 혈맹국이며 중공군의 개입 시에도 끝까지 남아 용맹을 떨쳤던 군대로 기억되고 있다.

1957 년 한국은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터키와 수교를 맺고 미국, 대만에 이은 세 번째로 재외공관을 수도 앙카라에 대사관을 개설하였고 1977 년에 영사관을 개설했다가 2007 년도에 재개설하게 된다.

최초의 교민은 1932년 한국에서 양복점을 열었던 터키인 가게에서 일하던 박재성씨인데 1949년 2월 터키로 와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1956년 한국전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백상기씨가 박사 과정 유학생으로 정착하였다. 1966년에는 박원택 교수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서재만 교수가 입국하여 1973년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나주환(30) 5단과 이영(29) 4단이 터키 스포츠 협회의 요청으로 대한유도회에 의해 파견되었다. 이후 73년에 태권도 전 국가대표 사범으로 조수세씨와 74년 한국 문화예술인이 활약하였고 태권도는 터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최초의 경제활동으로는 1972년에 영국에서 활동하던 병아리 감별사 김영기씨가 터키 현지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980년대에는 KOTRA가 들어온 후 기업들 중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1984년에 대외무역관을 설치하였고 대우종합상사, 효성, 카스, 현대, LG 등의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개인사업으로는 1980년부터 중동 지역에 있던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 운여행사와 서울정이 개업하면서 최초로 한국인 관광이 시작되었다.

교민들의 초기 정착은 개인적인 이유와 한국전쟁과의 인연, 유학생 신분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70년대에는 유도와 태권도, 한국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적인 진출과 병아리 감별사로 현지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80년대 초반에는 근처 중동권에서의 교민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개인사업들이 시작되었고 80년대 중 후반 KOTRA 진출 이후 기업들의 진출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져 갔다.

도약기 1989년 -2012년

1988년에 한글학교가 시작되고 1989년도에 한인회와 한인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조직을 갖추게 된 한인 사회는 그 이후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였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이란 존재는 막연히 한국전 밖에 떠올릴 것이 없었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3,4위를 벌여 터키가 3위를 차지한 이후로 다시금 새롭게 한국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 초반 이후 점차적으로 한류 드라마와 음악 등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가 커져갔고

2002년부터 시작된 터한문화교류 협회의 참전 용사 및 다양한 학술,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의 다양한 학술, 문화교류가 진행되어졌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교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며 90년부터 섬유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경우 현대차는 2006년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한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경제분야에서 많은 정부 표창장 수상자들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발전기 2013년 - 현재

200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어진 한류 붐과 문화 교류 활동, 터키 내 교민들의 활동,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로 인해 현지에는 다양한 한류 문화 관심자들과 문화 콘텐츠 사이트들이 늘어가게 되었는데 201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양국 간의 화합과 문화적 교류에 정점을 찍게 된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관광지역인 술탄 아흐멧에서 양국 간 총 400억 규모의 행사로서 23일 동안 46개의 프로그램의 대규모로 진행되게 되었다.

엑스포의 여파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특히 2016년 터키의 가장 역사 깊은 명문대인 이스탄불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를 설립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제 3 다리, 유라시아 터널, 차낙칼레 교동의 초대형 건설 수주를 따내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꾸준한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2018년 한해 16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등 터키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깊은 유대의식 속에 드디어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로서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인 유대관계와 협력관계가 꽃을 피우고 있다.

2017년 쿠테타와 테러 등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교민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2020년 초반 약 3천 2백명 정도로 추산된다.

1. 정부 관계

앙카라 대사관

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1957년 3월 8일에 이루어졌고 같은 해 3월에 앙카라 대사관의 공관 개설이 이루어졌다. 현재 제 23대 최홍기 주 터키대사가 재직 중이다.

순서	대사관 역대 공관장	부임일
초대	정일권 대사	1957.6.17
2 대	신응균 대사	1959.7.7
3 대	윤치창 대사	1961.1.28
4 대	최영희 대사	1962.4.16
5 대	이성가 대사	1966.10.26
6 대	박찬현 대사	1971.3.18
7 대	이한림 대사	1974.4.10
8 대	문철순 대사	1976.6.1
9 대	박 영 대사	1980.6.8
10 대	이상진 대사	1983.8.15
11 대	장명하 대사	1986.6.17
12 대	김내성 대사	1989.4.17
13 대	문동석 대사	1992.4.10
14 대	유병우 대사	1995.3.29
15 대	조상훈 대사	1998.6.15
16 대	김영기 대사	2001.3.21
17 대	권영재 대사	2004.3.5
18 대	김창엽 대사	2006.3.

순서	대사관 역대 공관장	부임일
19 대	배재현 대사	2009.3.
20 대	이상규 대사	2011.8.
21 대	조윤수 대사	2014.12.
22 대	최홍기 대사	2018.1-

이스탄불 총영사관

이스탄불 총영사관은 한국 수출 시장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터키와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하여 터키의 경제, 문화, 언론 등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에 총영사관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여 대통령 재가(1977. 6. 8)로 1977년 12월 12일에 최초 개설 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하고 조직의 적정규모화를 기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7개 공관 폐쇄 결정(1981. 10. 17)에 따라 1982년 2월 28일자로 체폐되었으나 이후 이스탄불 거주 동포 및 이스탄불 방문 한국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스탄불 지역 투자 및 경제, 통상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1월 15일에 재개설되었다. 현재 제8대 장 연 주 총영사가 재직 중에 있다.

순서	영사관 역대 공관장	재임 기간
제 1 대 총영사	권동만	1977. 12 - 1979. 6
제 2 대 총영사	이동윤	1979. 6 - 1981. 12
제 3 대 총영사	백성택	2007. 1 - 2009. 11
제 4 대 총영사	홍종경	2009. 11 - 2012. 9
제 5 대 총영사	전태동	2012. 9 - 2015.10

순서	영사관 역대 공관장	재임 기간
제 6 대 총영사	차영철	2015.10 - 2017.12
제 7 대 총영사	홍기원	2018.04 - 2019.05
제 8 대 총영사	장연주	2019.05-

주 터키 한국문화원

주 터키 한국문화원은 양국간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2011년 10월 13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설치되었고 현재 조동우 초대 문화원장이 재직 중이다. 터키 각지에서 한국 관련 전시, 공연, 심포지움 및 세미나 등의 행사와 더불어 한국어, 한식, 태권도를 비롯해서 한복, K-POP, 서예, 국악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강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터키 내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앙카라대학교 퇴메르(어학원)와 협력하여 앙카라, 이스탄불, 부르사 및 이즈미르에서 세종학당을 운영 중에 있다. 전시실, 공연장, 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 유학상담실, 카페테리아, 태권도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 강좌,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대통령 방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14-17일 터키를 공식 방문하였는데 이는 1957년 양국의 수교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대통령궁에서 아흐메트 네즈데트 세제르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관계증진, 한반도와 동북아 및 이라크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두 정상은 최초인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방문이 두 나라 관계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동감을 표명하고, IT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이스탄불에 한, 터키 IT 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전 참전 혈맹국에 대한 사의표명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간 경제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의 구매사절단을 파견키로 했으며, IT 협력센터에 3년간 100만불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사적인 부문에서도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활동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터키 우정의 해' 선포이며, 2007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굴 대통령 한국 방문

굴 대통령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타네르 열드즈' 에너지자원 장관, 터키상공회의소연합(TOBB), DEIK, 터키수출위원회(TIM)를 포함한 약 70명의 비즈니스업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문 일정 가운데 제 12회 터-한 비즈니스 공동회의에서 '하이리 바라칠르(Hayri Baracli)' IETT 사장, '알라아딘 열마즈(Alaadin Yilmaz)' 볼루 시장, 한국 NH 투자사, CEV 홀딩 등이 참여한 가운데 터키에 약 1억불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 내용은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되는 버스에 천연가스 이용,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 2010~2012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원전협력 양해각서 등 4개의 협정 및 양해각서가 서명하였다. 굴 대통령 내외는 서울에서의 공식 일정 이후 한국전 참전 터키 장병 유해 462기가 안장돼 있는 부산 UN 묘지를 참배하였는데 터키 주요 언론은,

터키 대통령으로서는 28 년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역사적 우호관계에 있는 양국간 정치, 경제 및 투자 관계가 향후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출처: Hurriyet, Haberturk 지, 2010.6.13, 14, 15 자)

굴 대통령은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G20 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발경험을 전달하는데 있다"며 "동맹국이면서 충분한 개발경험을 가진 한국과 같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굴 대통령은 한국과 터키는 FTA 협정을 2010 년말까지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터키는 EU 의 경제.관세동맹 회원국인 만큼 (한국과) EU 가 함께 진행하는 FTA 에 터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굴 대통령은 북핵 및 이란 핵문제에 언급, "터키는 핵무기를 반대하며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폐기문제는 전쟁이나 투쟁이 아닌 외교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2012.2.4(토)-2.7(화) 간 터키 국민 방문을 위해 2.4(토) 이스탄불에 도착하였다. 이 대통령은 16:00부터 Ciragan 호텔에서 개최된 ‘한-터키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였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는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장관, ‘리파트 히사르츠클로홀루’ 대외경제위원회(DEIK) 회장 등 터키 경제인 20여명과 홍석우 지경부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 경제인 20여명이 참석하였다. 2.5(일) 아침 공식수행원들과의 대책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10:00-10:40간 ‘카디르 톱바쉬’ 이스탄불 시장을 접견하였다. 동 접견 시 이스탄불 시에서는 ‘Adem Basturk’ 사무총장, Muzaffer Hacimustafaoglu 교통 및 프로젝트 담당 사무차장, Ali Altintas 문화·재무담당 사무차장 및 Mehmet Duman 시장 자문관이 배석하였다. 이스탄불 시장 접견 후 이 대통령 내외분은 11:00-12:00간 콘라드 호텔 볼룸에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동포간담회에는 200여명의 재 터키 한인동포 및 수행원들이 참석하였다. 동포간담회를 마친 이 대통령 내외분은 Adile Sultan Saray에서

개최된 ‘에르도안’ 터키 총리 주최 오찬 및 총리와의 단독회담을 가졌다.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한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8.05.02 2 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 · 27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방한한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터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하에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터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화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 층 접견실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첫 번째 국민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느껴진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날 두 정상은 2012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후 양국의 협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교역의 균형적인 확대를 통해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한·터키 FTA 의 틀 내에서 서비스투자협정을 조속히 발효시켜나가기로 했다.. (한국일보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2. 한국 전쟁 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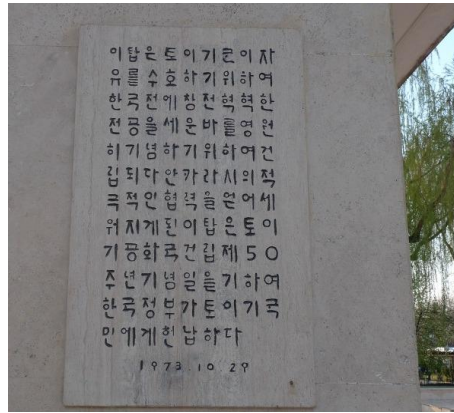
터키는 한국 전쟁에 제 28 사단 제 241 연대 1 개 여단을 편성했으나 병력 모집 5000 명을 초과한 1 만 5000 여 명이 자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여단은 3 개 보병대와 1 개 105 밀리 곡사포대대, 그리고 그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10 월 17 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1953 년 7 월 종전시까지 군우리전투(1950.11.26-30), 장승천 전투(1951.4.22-23), 금량장 및 151 고지 전투(1951.1.25=27), 네바다 전초전(1953.5.28-29)를 치르며 승전을 거두었다. 터키는 두번째로 많은 병력인 1 만 4936 명이 참전해 724 명 전사, 포로 217 명, 실종 166 명, 부상 2176 명으로 나타났다. 정전 후에 1 개 중대를 제외하고 54 년에 모두 철수하였고 66 년에는 의장대 1 개 분대만 남아있다가 71 년에 모두 철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57 년 3 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73 년 앙카라 한국인 공원, 77 년 여의도에 앙카라 공원을 개원하였고 수원의 한국인 고아원이었던 앙카라 학원과 용인의 터키 참전 비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를 지속적으로 기념해 오고 있다.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터키군 관련 기념물로는 경기 용인에 있는 참전기념비, 부산유엔기념공원에 기념비가 2 개 남아있다.

한국공원

수도인 앙카라 중앙역(Ankra Gari) 근처에 위치한 한국공원(Ankara Kore Şhitleri Anıtı)은 서울시가 1971 년 8 월 앙카라시와 자매결연을 한 후, 터키가 6·25· 때 UN 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기리며 조성한 공원이다. 서울시에서는 1973 년 11 월 터키공화국 수립 50 주년에 맞춰서 이곳에 한국공원을 조성하여 앙카라 시에 헌정했는데, 매년 6 월 25 일 터키주재 한국대사관과 터키 참전용사협회에서 6·25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 터키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 동안 전사 721 명, 부상 2147 명, 실종 175 명, 포로 346 명이 희생되었는데 한국전 때 희생된 터키 병사들은 그동안 다른

외국군 희생자들과 함께 부산의 UN 군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가 앙카라에 한국공원 조성 후 유골들 일부를 채취하여 한국공원으로 이장하였다.



터키군 참전 기념비

터키군은 한국전 당시 3 개 보병여단을 과병해 김량장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에 1974 년 국방부가 마성 IC 인근에 터키군 참전기념비를 세웠고 현재는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다. 이종수 제 1 부시장은 6.25 전쟁 당시 터키군의 활약으로 김량장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를 역전해 남하하던 중공군과 인민군을 격퇴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량장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려 3 천여 터키군 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영원불망의 송덕비

한국 전쟁에서 터키군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영원불망기념비는 육군26사단 사령부에 위치해 있다. 건립일자는 단기4287(1954년)10월 10일로서 건립자는 명예교장 박승훈, 대성중학교 설

립자 및 교장 김원찬으로 되어 있다. 2007년 터키 수교 50주년(3월8일)의 해를 맞아 주한 터키 무관 파흐레틴 아이든(Fahrettin Aydin44)대령과 백상기(77) 주한터키 대사관 명예고문이 사단을 방문했다.

기념비의 유래는 1953년 교직원 8명에 의해 천막교실로 문을 연 대성고등공민학교는 다음해인 54년에 대성중학교로 승격했는데 이때 도로를 만들고 교실을 신축하고 학생들에게 급식도 제공하면서 학교가 운영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주둔 터키군에게 김교장과 지역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54년에 건립한 송덕비이다. 앞면과 오른쪽 면에는 한글로 도와 준 터키군들의 이름과 건립 경위 등이 한글과 터키어로 적혀있다. 아이든 대령은 한터 양국의 협력관계는 물론 역사적 자료로서 중요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주한터키대사 명예고문인 백상기(77)고문은 이 날 당시 터키군의 활약상과 기념비에 얽힌 사연을 담담히 들려 주었는데 기념비에서 그 때 자신이 통역관으로 일했던 기록을 찾아보게 되자 큰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송덕비의 의미는 전투와 관련된 기념물이 아닌 순수 주민 자체적으로 마련된 민간교류를 증명하는 기념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터키군의 퇴진과 함께 운영난으로 결국 대성중학교는 폐교하였으나 기념비는 92년 균유물로 사단에 보관되어 있다.

‘제5차 주한 토이기 여단장 매태 울다클 장군 이하 여러 장병은 학교를 토이기 여단 학교로 결정하고 막대한 문자를 원조해 주시었거니와 앞으로도 적극 원조하여 사회의 혜택을 입지 못한 군경과 애국지사의 유자녀,극빈 아동은 물론 과년한 아동을 교육해 국가의 충실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해 주신 그 공적을 한국 역사에 남기어 찬양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하겠기에 이 비석을 건립해 감사의 뜻을 표하나이다.’



여의도 앙카라 공원

지하철 9 호선 셋강역 3 번 출구에서 100 여 미터 거리, 일명 ‘앙카라공원’이다. 1971 년 8 월 23 일 서울시와 앙카라시(터키수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기념하여 1977 년 5 월 1 일 개원한 공원이다.



수원 앙카라 학교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은 1 개 대대병력을 수원시 서둔동 지금의 농촌진흥청에 주둔한 뒤 1952 년 고아원인 앙카라 학원을 세워 터키군은 휴전 이후인 1960 년대까지도 전쟁고아 640 여명을 돌보는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에 수원시는 터키군이 주둔했던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고 2012 년 11 월 서둔동 옛 서울농대 앞 서호동로에서 서호초등학교 방향 약 450m 구간에 대해 '앙카라 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2013 년 4 월 SK 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협조를 받아 앙카라 학교와 서호동로 사이 골목길 180 여 m 에 벽화작업을 했고 최근 2 천 538 m² 크기의 앙카라 학교공원을 완공하게 됐다. 백상기 고문은 지자체가 나서 터키 군인들의 박애 정신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념지로 잘 육성하고 있어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2. 조직,기관

터키 한인회 총연합회

터키 한인회는 1989 년 윤대우 초대 회장이 선출되어 현재 18 대 한인회가 재임 중이다. 이즈밀 한인회는 2003 년부터 지부회로 있다가 2009 년에 한인회를 설립하였다. 앙카라 한인회는 2012 년부터 설립되었고. 동남부 한인회는 2017 년에 새롭게 개설되었다. 2017 년 8 월 14 일 터키 한인회 총 연합회가 설립되었고 총 연합회 회장으로는 이스탄불 회장인 박용덕씨가 선출되었다.

2020 년 현재 이스탄불한인회 회장 박용덕, 부회장 김현향(서기 겸임), 부회장 김정호(사무총장 겸임), 수석총무 정성은(재정 겸임)이 재임 중이다.

순서	한인회 회장	부임기간
초대-3 대	윤대우	1989-1992
4 대	최평화	1992-1993
5-6 대	윤경웅	1993-1996
7 대	최덕삼	1996-1998
8-9 대	김성렬	1998-2002
10 대	정지섭	2002-2004
11 대	김상진	2004-2006
12-13 대	조규백	2006-2010
14 대	김성렬	2010-2012
15-16 대	박남희	2012-2016

순서	한인회 회장	부임기간
17-18 대	박용덕 (이스탄불 한인회장 및 재 터키 총 한인회 연합회 회장)	2016-현재

이즈밀의 경우 터키 한인회 이즈미르 지부의 지회장으로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 김영기씨가 역임하였고 2007 년부터 김재수 지회장이 역임하다가 2009 년 5 월에 정식 이즈미르 한인회를 구성하여 초대회장으로 김대수씨가 선출되었다.

앙카라 한인회는 2012 년 설립되어 2020 년 현재 유학생 50 명 내외, 교민 120 명이 있다.

순서	한인회 회장	부임기간
초대	정창연	2012.6-2014.10
2-3 대	전은수	2014.10-2018.12
4 대	정창연	2018.12-

남동부 한인회는 2017 년 3 월 27 일 첫 한인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송창섭씨가 선출되었고 2019 년 5 월부터 이태연씨가 역임 중이다. 현재 약 70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학교

이스탄불 한글학교

1988년에 이스탄불 유럽 지역 토요일 한글 학교가 유니온 교회에서 개설되었다 (초대 교장 최덕삼).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 토요일학교는 2005년 10월에 IGA학교에서 개설되었다(초대교장

이영이). 앙카라 한글학교는 2004년2월 28일부터 개교하여 11월 22일에 개설되었다. (초대 교장 길호갑), 그 외 이즈미르 지역에도 한글학교가 진행 중이다. 현재 통 4개의 한글학교가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

참전용사기념사업회

터키는 한국전에 참전한 16 개 UN 군 중 미국, 캐나다,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 만 5000 명의 군대를 파견해준 국가로서 1950 년 10 월 17 일부터 1953 년 7 월 27 일 정전 때까지 2 만 1212 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리 전투와 관문점 동북부 네바다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섬기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초대 회장으로는 박남희, 조규백, 윤대우씨가 역임하고 있다.

(사단법인) 터기한국 문화교류.교육.보건.예술.체육 협회(터한문화교류협회)

2002년 설립된 양국 간의 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터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세워진 교민 주도의 문화교류협회로서 2013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어, 터키어 교육 및 도시 간 자매결연 (성북구와 베이올루 구청), 대학 간 협약, 양국 간의 문화 및 경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현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지자체간 자매결연, 대학간 교류, 한국어 교육, 터키어 교육, 문화공연, 전시, 학술세미나, 학술전시, 패션쇼, 문학세미나, 태권도 한마당, 한-터 우정의 숲 조성, 경제교류, 여행객 사건사고 지원, 한인사회 단결, 친한인사 양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다. 2002년부터 회장 박용덕, 부회장 김현문(현재 박남희), 사무총장 정성은씨가 부임해 운영 중에 있다.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윈

한국 정부 지원 단체로서 한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터키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및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해 결성되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이하 KOWIN)는 2001년 한국 여성가족부의 출범과 함께 전세계에서 활약하는 한민족 여성 인력 발굴과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매년 한국에서 진행되는 KOWIN 대회에 참가하는 500여명의 전문 여성 인력, 한민족 여성 리더의 연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협력 하에서 각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35개국에서 6,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터키 지역 설립은 2011년 8월, 초대 박남희 담당관과 25명의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각 회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4개의 부서(차세대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경제)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결연되면 새 회원을 영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서 전체 회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정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 2011년 ~ 2012년 주요 활동 >

- 2011년 8월 제 11회 KOWIN 울산대회 참가(3명)
- 2011년 10월 25일, KOWIN 터키 홍보 차 이스탄불 시청의 "여성복지센터(KKM)" 방문 (명예회장인 이스탄불 시장 카디르 톱바쉬 부인 외즐레이쉬 톱바쉬 와 면담)
- 2012년 1월 18일, 고유명절 한마당 경진대회 주최 (이스탄불 미마르 시안 대학)
- 2012년 4월 26일 이스탄불 시청 여성연합복지센터(KKM) 주최 바자회 참석
- 2012년 5월 22일 차세대 리더쉽 세미나 개최(강사: 지연경 사모(전 국회의장 김형오))
- 2012년 8월 28일~31일 제 1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KOWIN 여수대회), 박남희 담당관 외 회원 5명 참가
- 2012년 11월 2일, "교민을 위한 KOWIN 터키 가을 세미나" 개최 (강사 김주찬 박사, (정치, 경제 중심으로 터키 이해하기))
- 분기별 정기회의, 회원 및 부서별 친목 간담회 등

< 2013년 주요 활동 >

- 4월 12일 KOWIN 독일 창립 10주년 기념 KOWIN 터키 & KOWIN 독일 공동세미나 개최(이스탄불)
- 7월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 위로회
- 8월 27일~30일 제 13회 KOWIN 대전대회 박남희 담당관 외 회원 2명 참가

- 10 월 KOWIN 터키의 날, 가을세미나 개최
- 11 월 한인 여성들과 간담회
- 12 월 바자회
- 지역사회 봉사 및 기부활동 등
- 분기별 정기회의, 부서별 친목 간담회 등

대전 대회에는 세계 35 개국에서 활약 중인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 한인 여성 200 여명과 국내여성 500 명이 참가하였다.

순서	회장	부임기간
초대	박남희	2011-2013
2 대	이송자	2013-2017
3 대	윤은경	2017-2019
4 대	이송자	2019-

기업인 연합회

2019 년 2 월 28 일 1 차 재터키 한국기업협회 총회가 열렸다. 협회장,부협회장, 이사 6 명, 감사 3 명, 코디네이터 1 명, 사무국 담당 1 명으로 구성되었다.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사들 간의 정보 공유와 권익 보호, 협력과 친목을 위해 세워졌다. 회원사 간의 법무 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가이드, 호텔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순서	회장	부임기간
초대	서석재 법인장	2017-2019
2 대	오도길 포스코 대우 법인장	2019-2020?

순서	회장	부임기간
3 대	김문선 법인장	2020-

3.경제 활동

터키 최초의 한인 경제 활동은 영국에 병아리 감별사로 파견을 받은 김영기 씨의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72년 5월 28일 터키에 입국하여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6년도에 이종배씨가 입국하여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가 폐쇄한 후 인조목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80년대 서성환씨와 천기원씨의 농작물 사업이 이루어졌다. 기업들의 진출은 80년대 들어 KOTRA가 생긴 이후 삼성전자(1984), 대우종합상사 (1985), 효성(1991), 카스(CAS)(1992), 현대(1997), LG(2000) 등의 대기업의 진출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져 현재 160여개의 기업체가 활동 중에 있다. 2018년 터키에 대한 한국의 연간 수출이 63억 4천백만 달러, 수입이 9억2천9백만 달러 수준으로 심한 무역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터키에서 일을 할 경우 가장 힘든 부분은 수금할 때와 터키인 직원들과의 관계라고 한다. 물건은 먼저 써보고 돈은 나중에, 그것도 최대한 미뤄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타민족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현지 문화로 인해 외부의 침입이 많았던 우리의 역사와는 대조적이다. 터키를 알고 터키인을 알아갈수록 비즈니스 관계는 쉬워질 것이다.

기업 현황 및 특징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통계에 따르면, 2017 년말까지 우리나라의 對터키 투자 누적금액은 약 27 억 달러에 달하며(신고금액 기준) 신고법인 수는 162 개, 신고건수는 650 건이다.

한국 기업의 對터키 투자는 1980 년대 초반 이후 종합상사를 필두로 시작됐다. 이후 1992 년 전자저울 제조기업인 카스가 최초로 터키시장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진출했다. 이후 1997 년 현대자동차, 2000 년 LG 전자(에어컨생산법인)가 협력업체들과 함께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제조업 투자가 시작됐다. 제조업 중 주요기업으로 현대자동차, LG 전자, 포스코 등이 진출해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국 간 투자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對터키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으며, 자동차 및 전자제품부품, 섬유(스판텍스), 철강(스테인레스 냉연강관), 전동차량, 담배 등의 분야에서 약 20 개의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J CGV 가 터키 내 최대 영화체인 Mars Entertainment 를 운영해 800 스크린 규모의 영화관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의 對터키 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금액 (신고건수)	181 (72)	117 (61)	242 (53)	757 (41)	178 (52)	2,706 (650)

주: 금액은 신고금액 기준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2017 년 말 기준)

<지역별 투자동향>

지역	회사
이스탄불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현대종합상사, LG 전자, LG DISPLAY, LG 화학, 대우 인터네셔널, 카스,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효성, 대한항공, TK CHEMICAL,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KT&G, KCC, 범한판토스, 글로벌스, LG 상사, LG 하우스시스, SK 건설, 제일기획, 한화, 유코카캐리어, 아시아나항공, CJ CGV, 셀트리온, 웅진코웨이 등
이즈미트, 케브제, 부르사	1. LG-ARCELIK, 한일아산, 한라공조, 만도, CJ, 일진, 우리텍, 호원, SIMPAK, 성진사, 한일 C&F, SKMT, 현대자동차, KCC, 포스코, 서일, 두울, 대양글로벌
데킬다 및 체르케즈콰이	미스도스, 대양금속(SK), 효성
이즈미르	KT&G
아다나	경인양행
앙카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료원: 재터키 한인기업 협의회 내부자료를 토대로 무역관 작성(2018 년 7 월 기준)

삼성전자 최초 한국기업 지사 설립

KOTRA 가 설립된 이후로 한국 대기업 중에 터키에 최초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발을 내딛은 회사는 삼성전자이다. 1984년 9월에 김대균 지사장이 터키를 향하여 한국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그리스 아테네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1984년 이스탄불에 삼성전자 지사를 세웠다. 처음 정착 시 프로필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터키에 지사 설립을 위한 작업을 하였다. 이즈미르에 TV 생산 공장 투자를 진출을 터키 업체와 합작으로 진행하였다.

초기에 정착시기에 주 터키 대한민국 이상진 대사 및 권영재 무관을 방문하여 한국인의 정을 나누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터키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전혀 없어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애로사항이 많았다. 현지 업체인 프로필로 회사와 코치 그룹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당시 터키에 미리 진출해있는 일본기업의 경험을 정리한 자료들을 입수하게 되어 정착을 용이하게 진행 했다. 코트라 무역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후에 터키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정착에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

김대균 지사장은 1996년 7월에 터키에 재 부임하여 판매법인을 추진하였다. 터키 및 인근 중동지역 및 구주 채수출 무역기지 역할을 확대시켰다. 김대균 법인장은 터키에서 장남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아픔에도 초지일관 초대 지점구축과 미개척 시장 개척노력을 견지하였다. 이후에 삼성전자는 터키 법인은 2 조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터키에서 명성을 떨쳤다. 삼성전자가 지사가 설립된 후에 대우무역상사, 럭키금성 및 효성, 현대 등의 대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현대 차의 경우 2006년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카스 최초 법인 설립

카스 터키법인은 1992년 초기 김상진 지사장이 이즈미르에 한국 기업 최초로 법인을 설립해 터키에 진출했다. 이후 1993년에 이스탄불로 옮긴 후 30여 명의 터키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터키인 직원 8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며 이들이 전문지식 습득과 효율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도록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매출 성장을 위해 산업용 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카스 저울은 터키 상업용 저울시장에서 약 20%를 점유하고 2011년부터 정부 입찰에도 참여해 카이세리 공항, 시바스 공항, 말라티야 공항, 에그주름 공항에 Conveyor 계량 시스템을

납품했다. 지난해에는 항공 회사와 함께 항공기 A380 무게를 재는 항공 계량 시스템 분야에도 진출했다. 카스는 0.01g의 미세한 무게부터 거대한 항공기까지 잴 수 있는 전자계량 전문 기업이다. 터키 전역에 판매와 서비스를 겸하는 50여 딜러와 서비스만 위주로 하는 서비스 지정점 50여 곳을 두고 있다.

교민 사업

2000년 이후 교민들의 제조업 사업 분야는 사료, 금속, 장갑 공장, 봉제, 실 공장 운영 등으로 진출하였으나 후에 대부분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국무역은 터키에 한국기업 최초로 봉제 공장을 운영한 회사이다. 1985년에 합작 투자하여 주)코르타스를 설립하였다. 1988년에 두바이에서 근무하던 정지섭 씨는 터키로 발령이 나게 되어 7-8명의 한국직원과 190명의 터키인들로 구성된 잠바 생산 공장을 경영하였다. 1989년에 한국인 고액 급여와 직원들의 노동쟁가 장기화되어 재의가 풀린 이후에도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폐쇄하게 되었다.

교민들의 사업체 운영 경로는 주로 기타 중동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터키 지사에 파견 받아서 근무하던 중 또는 현지 한인 회사에서 근무 이후 독립하여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섬유업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는데 1990년 김주찬 사장은 조이 텍스틸 무역회사를 세우고 코오롱 제품을 터키에 판매하는 섬유 무역을 시작하였다. 정지섭 사장은 동국무역 직원으로 터키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도에 서울무역 회사를 이스탄불에 설립하여 섬유 제품 수출을 통해 1994년에 연간 매출 5천만불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 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 이후 조이 텍스틸과 서울무역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기타 무역 회사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OKTA(Oversea Korean Trade Association)

OKTA는 이스탄불 OKTA는 초대 2005년 김성렬회장, 김주찬 회장, 2017년 9월 정지섭 회장의 글로벌 마케터 3명이었는데 5명으로 증가하여 무역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찾아가는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24명의 회원이 확보되었다. 자기사업체를 갖은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OKTA 동유럽 CIS 지회장 대회 때는 13명이 모여 지회장 대회를 갖게 되었고 차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전주대학교 대학생 연수 행사를 진행하여 졸업생이 이스탄불 OKTA 회원사에 취업하기도 하였다.

4. 문화 교류

1970년에 유도사범이 파견된 이후 1973년에 조수세 최초 터키 국가 대표 사범과 1974년 한국 문화 예술인의 입국, 1985년 김두만 국가대표 사범의 활약이 있었다. 이후 별다른 문화교류 활동은 전무하다가 2002년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한문화교류협회가 설립되면서 한일 월드컵 이후 양국 간의 다양한 민간 문화교류활동이 진행되었다. 그 외 트라브존에도 사설 문화원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자체 폐쇄된 상태이고 현재 이스탄불(2002 01), 메르신(2014.11), 아다나에도 사설 문화원이 운영 중에 있다.



(사단법인) 터키한국 문화교류.교육.보건.예술.체육 협회(터한문화교류협회)

2002년 설립된 양국 간의 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터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세워진 문화교류협회로서 회장 박용덕, 부회장 김현문, 총무 정성은씨가 재직 중이다. 2002년 최초로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 2007년 한인들을 대상으로 터키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언어 교육 및 도시 간 자매결연 (성북구와 베이올루 구청), 대학 간 협약, 양국 간의 경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2013년에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2년 한인축구월드컵 대회를 위해 터키 문화부와 VISION LTD. 한국인문화원(사설)이 공동주최한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방문단의’ 한국 방문을 위한 기자회견이 터키 문화부 장관실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을 방문한 후 터키 문화부 장관실에서 보고회를 갖고 난 뒤 터키 문화부가 효과적인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제안하였고 터키 참전용사협회의 협력으로 사단법인 터키한국 문화교류.교육.보건.예술.체육 협회(터한문화교류협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한일월드컵축구 이후 문화, 체육, 교육, 학술, 예술,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대학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고 터키 및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이집트, 한국, 터키,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국제 학술, 예술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터한문화교류협회 회장인 박용덕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자문으로도 봉사를 하면서 협회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여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된 터키인 한국어 교육은 양소영 한국인 문화원 부원장이 실시한 터키 최초의 한국어 정식 교육 기관으로서 올해 들어 18년째를 맞아 600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한국인 대상 터키어 교육은 2016년까지 10년 간 진행되었다.

2013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성소피아 앞 광장에 1000석의 야외 극장을 설치하고 23일간 진행되었다. 한국의 정홍원 국무총리와 레젠타일 에르도안 국무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하며 국가적인 문화 행사로 진행되었다. 터한문화교류협회 박용덕회장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 쓴 공로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현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지자체 간 자매결연, 대학간 교류, 한국어 교육, 터키어 교육, 문화공연, 전시, 학술세미나, 학술전시, 패션쇼, 문학세미나, 태권도 한마당, 한-터 우정의 숲 조성, 경제교류, 여행객 사건사고 지원, 한인사회 단결, 친한 인사 양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다.

한국·터키 친선협회

1999년 터키에 규모 7.4 강진이 발생해 2~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에 그 금융위기를 겪었던 한국정부는 많은 금액을 원조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터키를 위한 모금운동을 펼쳐 기금을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활동 기반을 둔 '한-터키 친선협회(Turkey-Korea Great Friendship Association)'가 터키와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초대 회장 이시형박사, 사무총장 이희수 교수가 선출되었는데 이날 행사에는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고성대 고성개발 회장·손광운 협회 사무총장(변호사)·백상기 터키 대사고문·임덕규 디플로머시 편집인·이시형 협회장·하릴 님 주한터키대사·방송인 박찬숙씨·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작가 신봉승씨등 각계인사가 참석했다.

2013년 이스탄불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둘레 및 오스만투르크 문화와 한국의 신라문화를 바탕으로 한-터 양국의 문명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문화의 쌍방향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실크로드로 이어진 터키 이스탄불과 경주를 잇는 실크로드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가 2013.8.31-9.22 간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비잔틴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아야 소피아’(터키어로 성스러운 지혜)는 터키와 유럽의 역사를 대변해온 상징적인 장소에서 개막식이 이루어졌다. 개막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국무총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카디르 톱바쉬 이스탄불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 1 차관,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석호 경주시의회 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상규 주터키 한국대사, 전태동 이스탄불 총영사, 박남희 터키한인회장과 주요 내·외빈, 터키 국민, 외국인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개막의 순간을 함께했다.

식후행사로 펼쳐진 개막축하공연은 한-터 합동공연단 60 명이 출연해 한국과 터키의 우정을 담아내며 개막식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고, 양국 인사들과 관람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양국 언론과 이스탄불 주재 외신 등 200 여명의 취재진들이 몰려 이스탄불-경주엑스포 개막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이스탄불시가 공동 주최하고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양국 문화관광부와 유네스코, UNWTO(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 등 18 개 기관이 후원하고 세계 40 개국이 참가했다.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신라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문화가 한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8 개분야(전시 공연 영상 체험 특별행사 등) 46 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찬란한 전통문화와 IT 강국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한국문화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진수를 세계에 알릴 개막축하연주회 ‘한국의 소리 길’, 신라금관 등 국보급 유물을 전시하는 ‘한국문화재 특별전’(국립중앙박물관 주관) 등이 마련되었다. 신라를 소재로 한 최고의 뮤지컬 ‘플라잉’과 ‘신국의 땅 신라’,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에서 펼쳐지는 ‘길놀이 퍼레이드’, 전국 13 개 시·도·군 대표 공연단 공연, 한국의 숨결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한국대표작가 사진전’ 등이 열려 유럽의 문화수도 이스탄불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문화 원형질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한-터 문화예술계 거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양국의 문화를 서로 체험, 교류하는 행사도 주목을 끌었다. 한·터 예술합동교류전, 한·터 전통패션쇼, 한·터 문학심포지엄, 한·터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한·터 차(茶) 문화교류, 한·터 전통문화체험 등이 1 천년 넘게 이어온 한-터의 오랜 우정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켰다. 영화배우 한가인, 세계적인 거장 김기덕 감독 등이 참석하는 ‘터·한 영화주간’, 슈퍼주니어 등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출동하는 ‘K-POP 페스티벌’, ‘태권도 시범단 공연’, ‘비보이 퓨전공연’은 터키와 유럽지역의 한류를 증폭시킬 프로그램으로 현지 관심이 뜨거웠다. 19 개 나라의 풍물과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크로드

바자르'와 21 개 나라 전통 공연을 맛볼 수 있는 '세계 민속공연축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비잔틴과 오스만제국, 서양과 동양이 공존하는 아야소피아와 블루모스크 옆에서 펼쳐져 지구촌 문화 화합의 페스티벌을 연출했다.

이곳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한국기업 홍보관', 경북과 경주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경상북도·경주시 홍보관'(23 개 시군 참여)도 차려져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 이외에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터키 시장 개척 로드쇼'(한국콘텐츠진흥원), K-Food 홍보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한국관광 사진전(한국관광공사) 등도 이스탄불-경주엑스포 연계행사로 함께 열렸다.



한국 전쟁 영화 '아일라'

2017 년에 터키와 한국의 합작 영화인 '아일라'는 터키 자체에서 제작되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한국전 관련 영화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 중인 터키군인이 고아로 남겨진 어린 소녀를 발견한 뒤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군부대에서 키우게 되는 얘기다.

시사회에 이낙연 총리와 에르신 에르친 주한터키대사를 비롯해 참전용사의 손녀인 데프네 아네트 예신 카라벤리씨와 제일린 샤프펠씨가 함께했다. 이상규 전 주터키대사와 백상기 주한터키대사관 고문도 자리했다. 아일라의 실존 인물인 김은자씨(74)는 국내 거주중으로 지난 2010년 고 술레이만 딜빌리이 하사(2017년 12월 사망)와 재회한 바 있다.

에르신 대사는 아일라는 단순한 전쟁영화 아니라 국가에 상관없이 사람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라고 언급했고 이 총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감동이 훨씬 더 큰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 한국은 터키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며 "터키에서는 참 많은 젊은이가 (한국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영화 관람에 앞서 "보통 외교관 몇 사람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아일라의 아빠 노릇을 한 (터키) 군인이 했을 것"이라며 "인간애는 외교나 정치, 국경을 뛰어넘는데 그것을 절절한 감동으로 깨닫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일라를 만든 잔 울카이 감독은 이 총리에게 아일라 앨범을 선물하였고 이 총리는 약 2 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면서 몇몇 장면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5. 스포츠

유도

중앙일보 1970년 3월 4일자에 따르면 대한 유도회가 나주환(30) 5단과 이영(29) 4단을 터키 스포츠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견하기로 결정했음이 나타나있다. 이는 한국의 스포츠가 최초로 터키에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태권도

조수세씨(전 터키국가대표사범)가 73년부터 74년까지 터키 국가대표 사범으로 활동했었고 후에 그를 기념하는 기념우표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75년부터 81년까지 김정관 사범, 80년대 초반에 이효주 사범이 활동하였다. 85년부터 지금까지 김두만 사범 터키 국가대표 품세 감독으로 활용하였다. 현재 태권도는 터키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각종 국제 대회에서 터키인들이 메달을 따오는 태권도 강국이 되었다.

그 이후로 1985년에 입국한 김두만(전 터키국가대표사범) 사범이 이끄는 터키 태권도 국가대표팀은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총 4차례에 걸쳐 유럽 태권도 대회 품세부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한인들의 태권도의 문화 진출이 터키 현지인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로 드러나게 되었다.

태권도 한마당

2006 년도에 터한문화교류협회주최, 터키문화관광부, 터키청소년체육부 이스탄불 지청, 주터한국대사관, 한인회 후원 및 협조 하에 7 백명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기타 스포츠

이을용 선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트라브존 구단에 입단하여 활동했었다. 김연경 배구 선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페나르바체팀과 엑자즈바시 팀 소속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6.교육

한글학교

이스탄불 한글학교

터키에 최초로 신설된 한글학교는 이스탄불 한글학교이다. 이스탄불에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관계로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자 토요 한글학교를 개설을 위하여 최덕삼 한인회장이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이스탄불 유니온 교회 부속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1988년 2월 1일부터 학생 25명과 교사 4명이 시작하게 되었다. 자문의원으로는 한인교회, 상사협회의, 코트라, 학부모 4명(최덕삼, 윤대우, 김대균, 김주찬)으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규정상 윤 여행사 직원 명의로 사르예르 구청과 임대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던 보건시설이 낙후되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한인회 한글 학교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김상진 한인회장이 구청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학생들이 줄어도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한인들과 기업 그리고 한국정부의 지원금으로 교실을 수리하고 확정시켜 한글학교를

운영하다가 학생수가 늘어 터키 학교 Turkan soray orta okulu 에서 수업하게 되었다. 한글학교가 사용하던 장소는 한인들의 진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유치원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 1988-90 년까지 :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교장 최덕삼)을 선출하여 학교운영을 전담하였음
- 1991-93 년까지 : 학부형의 의결에 따라 학교운영을 한인교회로 이관시킴 (교장 조용성/ 이승수 목사)
- 1993 년 2 월 : 학부형 회의에서 교감으로 박남희씨가 선출되어 98 년 현재까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됨
- 1994-98 년 6 월 : 한인교회 사정으로 학교를 한인회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름(교장 윤경웅/최덕삼/김성렬)
- 1998 년 6 월 : 신임 김성렬 회장 취임으로 그간의 교감직이 교장직으로 바뀜(교장 박남희)
- 2000년 9월 : 박남희교장의 자진 사퇴로 인하여 한인회장의 지명으로 배성옥씨가 교장직을 맡게 됨.

이스탄불 아시아 한글학교의 경우 2005년부터 양소영, 김병철씨 등 몇 가족과 교사 1인을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그 해부터 이영이 초대 교장과 함께 IGA 학교 건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시아 세종 한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시아 80명 미만, 교사 13명이 수업 중에 있다.

순서	유럽 교장	아시아 교장
초대	최덕삼 1988-1990	이영이 2005 10-2007 08
2 대	조용성/ 이승수 목사 1991-1993	조신호 2007.09-2014 08
3 대	교감 박남희 1993.2-2000	홍철우 2014.09-
4 대	윤경웅/최덕삼/김성렬 1994-98	

순서	유럽 교장	아시아 교장
5 대	박남희 1998.6-2000.9	
6 대	배종옥 2009.9-2004	
7 대	김상진 2004-2006	
8 대	서혜숙 2006-2010	
9 대	사공심(유럽) 2010-2014	
10 대	고명순(유럽) 2014-2019	
11 대	김영선(유럽) 2019-	

< 이스탄불 유럽 한글학교 >

년도	학생 수	교사 수
1988 년	25 명	4 명
1989 년	28 명	4 명
1990 년	30 명	5 명
1991 년	29 명	4 명
1992 년	35 명	5 명
1993 년	43 명	6 명
1994 년	44 명	6 명
1995 년	40 명	6 명
1996 년	47 명	7 명

년도	학생 수	교사 수
1997 년	40 명	6 명
1998 년	40 명	7 명
1999 년	35 명	8 명
2000 년	42 명	8 명
2001 년	50 명	8 명
2020 년	150 명	30 명

이스탄불 유럽 한글 학교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88-1992 년까지 : 유치부부터 3 학년까지
- 1993-1997 년까지 : 유치부부터 중학교 1 학년까지
- 1998 년부터 : 중학교 1 학년 과정 폐지하고 한글 특수반 설치
- 현재의 단독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건물이 비는 過重에는 병설 유치원 운영시작.
- 1999 년 : 중등부 한문반 설치 (한문을 통한 어휘, 문장력, 국문법 지도)
- 2001 년 : 한글특수반 학생들 일반학급으로 흡수
(중략)
- 2020 년 현재: 학생 130 명 교사 18 명이 고 1 과정까지 운영

앙카라 한글학교

2004년2월 28일 앙카라 갈라디아 한글학교가 개교하여 11월 22일에 등록하였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아시스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험과 과학 교육 패키지, 외부 강사 초청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년도	교장	부임 기간
----	----	-------

년도	교장	부임 기간
초대	길호갑	2004.2-2010.6
2 대	양남식	2008.6-2010.6
3 대	최상락	2010.6-2012.6
4 대	김홍기	2012.6-2014.6
5 대	박정숙	2014.6-2015
6 대	엄영인 (교감, 교장 대행)	2015-2016.6
7 대	박종이	2016.6-

이즈미르 한글학교

1998년경에 시작된 이즈미르 한글학교는 초기에 교장없이 학부모들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주식회사 미주(사장 김재수) 사옥에서 진행하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현재 학생은 30명 정도이고 김용기 교장이 선임되어 있다.

한인 유치원

이스탄불 한글학교에 유치원과정을 운영하며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글학교가 터키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한 후에 한글학교 자리에서 사설로 유치원이 운영되었다. 유치원 운영자의 사정으로 한글학교 교장선생이 유치원을 임시로 대신 운영하다가 2016 년 중반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김현옥 선생님이 한인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체 시설을 수리하여 한인 유치원 원장으로 2016 년 9 월부터 2020 년 현재 김현향 원장이 터키 한인 유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세종학당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2011 년 터키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밀에 이어 2013 년 부르사, 트라브존,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에도 앙카라 대학교 부설 퇴메르 과정과 연계하여 세종학당 분원을 설치하였다.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 수업 등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센터로서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 중에 있다. 현재 사공심 초대 교장이 재직 중이다.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989 년 터키 최초로 세워진 한국어문학과로서 현재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국 관련 기업과 전문 영역에서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8 년에 박사과정 신설됨. 현재 Ertan Gokmen 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다. 한인으로는 유은미 교수가 재직 중이다.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00 년도에 개설되어 2010 년 9 월에 박사 과정이 신설되었다. 현재 주간반과 야간반이 있으며 Goksel Turkozu 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다. 유정숙 교수, 이정혜 교수, 조은숙 교수가 재직 중이다.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16 년 9 월부터 시작되어 초기에 Goksel Turkozu 교수, 정은경교수, 양소영 교수로 시작되어 그 다음 해 Goksel Turkozu 교수 자진 사퇴 이후 조홍윤 교수, 손영은 교수, 황승업 교수가 부임하여 2020 년 현재 한국인 교수진만 5 명이 재직 중이다.

7. 종교

이스탄불 한인교회

순서	교장	부임기간
초대	조용성 목사	1989 05-1992 11
2 대	이승수 목사	1992 11-1996 11
3 대	최정호 목사	1997 03-2000 02
4 대	박경한 목사	2000 07- 2010 07
5 대	주정빈 목사	2010 07-2016 04
6 대	이석주 목사	2016 08 -

1986년 9월 부터 김주찬 유학생 부부는 백두천 부부와 최덕삼 부부의 제안으로 국제유니온 교회에 출석하던 한인들과 함께 가정모임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윤대우, 최평화(1987), 최덕삼, 김대균(삼성지사장), 백두천(코트라관장)이 함께 참여하다가 1989년부터 조용성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정식 한인교회가 출범하게 된다.

2009년 10월 31일 한인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이스탄불 교회 한인 단원 45명은 한터 친선 "10월의 어느 멋진날" 음악콘서트(지휘 : 정재호 간사)를 성 이레네 교회에서 이스탄불 시청, 이스탄불 총영사관, 터키한인회, 터한문화교류협회, 이스탄불 한국인 협회의 공동 주최로 태풍이 몰아쳤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참전 용사들을 비롯한 1천 1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동원되어 성공리에 끝마쳤다.



한인 카톨릭 교회

이스탄불 한인 카톨릭 공동체는 2007 년 9 월 고인현사목에 의해 설립된 후 모임을 산타마리아 드라페리스 성당과 프레스코 수도회 국제 성당에서 갖고 있다. 참석 인원은 50 명내외이다.

한국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에페스 평화 관상 기도의 집에서 에페소 성지사목과 함께 2017 년 5 월에 시작하여 모이고 있다.

평화센터는 2015 년 12 월에 시작되어 중동 평화난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종교

1990 년 초반 통일교의 활발한 포교활동이 있었는데 CHP 수상 등 정치계에도 영향력이 컸다고 전해진다. 불교의 활동은 전무하다. 현재 신천지 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봉사 활동

1999년 지진 시 의료 및 구호 봉사

1999 년 6 만명의 실종자를 냈던 알로바 7.4 대지진 이후 한국 교회 연합회에서 모금한 기금을 통해 진양지였던 알로바 지역에 100 세대 가건물과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어와 문화 교실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많은 의료 봉사팀의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통역과 안내, 문화 센터 관리 등의 교민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역할이 컸다.

한인 심장 수술 환자 돕기 교회 바자회

매년 가을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는 터키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가 열린다. 다양한 한국 음식과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장이 되기도 하는데 수익금은 매년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되고 있다.

10. 관광

여행사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8 년의 경우 16 만명으로 추산된다. 여행업은 김주찬 유학생이 1985 년 가을부터 터키 한국 콘디넨탈 여행사의 터키 지사장으로 임명되어 2 년간 투르홀과 협력하여 여행사를 진행하였고 1986 년도에 교민 여행업체인 윤여행사가 최초로 시작되었다.

한국 식당

1986 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터키에 한인식당 1 호인 서울정과 최초의 여행사인 윤여행사를 설립한 윤대우 박남희 대표는 이란에서 터키로 이주하여 여행업과 한식당의 최초 역사를 쓰게 된다. 한식당은 이스탄불에서 부촌으로 잘 알려진 에틸레르에 문을 열었는데 평소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없었던 관계로 터키에 진출한 한국기업 지상사 및 일반 교민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관련된 터키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용했는데 현직 국무총리인 이뇌뉴는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기도 했다. 나중에 터키 대통령이 된 케난에브란 수상도 서울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본인이 남북한이 휴전 이후에 한국에 주둔한 터키군인으로 한국에 파병이 되었던 경험을 통해 한국 음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서울정은 1998 년 서울정 2 호점을 술탄아흐멧 지역에 개장하였다.

이후 1991년 최평화 부부에 의해 탁심 지역에 한식당 2호인 태극정이 개업하였다. 그 이후 가야식당, 탁심식당, 태백식당, 천기와 식당, 서라벌 식당, 고려정, 참숯, 소풍 등의 식당들이 개업하였다.

한국 식품점

터키에 개장한 한국식품점 1호는 이스탄불 유럽에 위치한 스마트마켓이 있다. 한국식품점이 없어서 한인들이 한국 식품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중 박영숙 사장님이 2009년 한국식품점을 개장하였다.

한국 식품점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식품의 수입통관이다. 터키가 GMO 기준이 유럽보다 엄격한 0%를 적용하기에 이따금 통관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터키의 포장 규격이 한국과 달라서 약간의 차이지만 터키의 포장 규격에 맞지 않아 통관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국 회사들이 규격을 다르게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 터키에 수출용으로 특별히 주문을 받아서 제조한 제품을 터키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 통관을 위한 제품 시험에 드는 비용도 많지만 가끔 성분 시험을 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원가의 증가와 유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터키에 있는 한국 식품점들은 자체적으로 공장 허가를 받아서 콩나물, 두부, 떡,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스탄불에는 2개가 있으며, 앙카라에 1개가 있다.

11. 교민

최초 교민들

최초의 교민은 박재성(샤밀 박)씨로서 근대 한국 최초의 무슬림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때, 중학교를 중퇴한후 경성에서 터키인 아브뮐하크 누만(Abdülhak Numan)이 하던 알타이 양복점에 취직해서 누만 사장에게 신용을 얻고 양복 재단 기술을 배웠다. 사장이 자식 없이 일찍 죽자 양복점을 물려받고 과부가 된 사장의 아내와 재혼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해 샤밀이란 이름을 얻었다. 1949년 2월 터키로 가서 귀화해서 살았는데 불행이도 첫부인과 곧 사별하게되고 다시 일본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도 사별로 끝나게 되었다. 전처에서 남매를 둔 박용은 다시 터어

키 여인과 재혼하게 되고 후에 이스탄불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였다. 샤밀.박으로 불리우는 박용은 한국인 특유의 강인한 도전과 노력으로 포목점을 경영하면서 낮설고 물설은 터키에서 어려운 생활을 개척해 나갔다. 2002 한일 월드컵 관련 당시 터키 방송에서도 나온 바 있다.

두번째 민간인으로 터키에 들어온 사람은 백상기씨이다. 한국전때 터키 사단에 통역관으로 배치되어 활동하다가 1956년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터키 유학 길에 오른다. 1961년 앙카라 대학교 정치대학 외교과를 졸업하고 1963년 앙카라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이수하였다. 이후 66년부터 외무부 소속으로 주 앙카라 한국대사관 근무에서 근무하였고 81년에는 주 앙카라 한국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지내고 89년부터 한터 민간 경제 협력 위원회 자문과 1995년부터 현재까지 주한 터키대사관 명예고문으로 활동 중에 있다.

백 고문은 처음 파견된 여단에 배치돼 터키 참전군과 함께 1950년 11월 평안남도 군우리 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천막에서 나오자마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어렵사리 터키군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탔지만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알로 버스 안에 있던 터키군 절반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도 겪었다.

백 고문은 인터뷰에서 터키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끝까지 용감히 싸워준 것은 물론, 앙카라 학원을 설립해 전쟁고아까지 돌봐준 고마운 형제의 나라라며 우리 나라 국민들 모두가 터키군의 용감함과 박애 정신을 잊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박원탁 교수

한인으로서 최초로 1966년(중앙일보) 국립 앙카라대학교 혁명학 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한국 외국어대학교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 교수, 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대 아프리카문제 연구소장, 11대 국회의원, 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재만 교수에 터키 국가최고공훈메달

1966년 터키로 유학을 떠난 서 교수는 터키 국립 앙카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3년 한국에 돌아온 뒤 한국터키학회를 만드는 등 32년 동안 터키 연구를 계속해 왔다. 서 교수가 편찬한 국내 유일의 터키어 사전은 처음 터키어를 공부할 때부터 20여 년간 메모해 둔 수백 장의 단어장을 모아 1988년 출간되었다.

2005년 한국외국어대 터키어과 재직 시 서교수(당시 65세)는 터키어 교육과 터키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터키 정부로부터 ‘국가최고 공훈메달(Distinguished Service Medal)’을 받았다.



태권도 조수세 감독

72년에 이스탄불에서 친선 시합을 보이고 73년대에 전국가대표 터키 태권도팀 감독으로 한국에서 부임하여 터키의 유도 태권도 연맹 소속으로 활약하게 된다. 터키의 61 개주 중 37 개 주에서 3 만명의 군인, 경찰, 민간인들에게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접 자신의 도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84 년 북사이프러스 공화국이름으로 기념 우표에도 등장하였다. 그의 대국민 영향력은 우표에도 등장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후 터키에 태권도가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두만 태권도 사범

1985년에 정착한 김두만 사범이 이끄는 터키 태권도 국가대표팀은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총 4차례에 걸쳐 유럽 태권도 대회 품세부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김두만 사범은 터키 문화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터키 정부로부터 부상으로 자가용 1대와 금 100여개를 하사 받기도 하였다. 후에 본인 스스로 무급으로 국가대표사범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용성 박사, 터키언어협회 공로상 받아

2017년 5월 23일 중앙아시아학회는 튀르크어학을 연구하는 이용성 박사가 터키언어협회가 주는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제8회 국제 튀르크어 회의에서 튀르크어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터키언어협회는 "이 박사가 튀르크어 연구가 한국에 보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튀르크어의 친족 언어와 후치사 연구에서도 성과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튀르크어는 터키어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돌궐어 등을 아우르는 언어다.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이 박사는 앙카라에 있는 하제트테페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귀국한 뒤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고대 돌궐어 연구 성과를 정리한 '돌궐비문 연구' 등의 책을 펴냈다.



12. 업적 연구자 목록

터키에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은 다음과 같다.

- 박원탁, 앙카라대학교 혁명학 박사 (1966), 한국 외국어대학교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 교수, 외대 아프리카문제 연구소장, 11대 국회의원, 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 서재만, 앙카라대학교 정치학 박사 (1973), 한터학회 회장
- 이회수,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 박사(1988),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 최한우, Hacettepe University 비교문화 및 지역학 박사(1989), 한동대교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주찬, 이스탄불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한국과 터키군부의 민간 정치 개입에 대한 비교연구’ 박사 (1991)
- 연규석, 앙카라 대학교 언어학 박사(1995),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 이난아, 앙카라대학교 터키문학 박사(1997),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 이용성, Hacettepe 대학교 터키어 박사(1998),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
- 신양섭, 이스탄불 대학 이란어과 박사
- 오은경, 국립하제테페 대학에서 터키 문학과 비교문학 박사, 우즈베키스탄 민속학 국가박사 (2014). 동덕여대 교수
- 정은경,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박종이, 중동공과대학 박사, 아틀름 대학교 교수
- 안선애, 터키 국립 하제테페대학교 미술 대학원 회화과 박사 (2004), 글로벌 미술연구소 소장
- 이희철, 국립 가지(Gazi)대 박사, 前터키공사참사관,
- 김대성, 터키 Hacettepe 대학교 사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터키어과 교수
- 김종일,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 중동사 교수
- 오종진, 빌켄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 김성운, 에게대학교 사회학 박사, 고려신학대학교 교수
- 이정혜, 이스탄불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에르지에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박노웅, 마르마라대학교 국제경제학 박사
- 최정숙, 마르마라대학교 박사(2013)
- 양민지, 에르지에스대학교 박사

재직 교수들

2020년 현재 터키 대학에서 재직 중인 한인 교수들은 다음과 같다.

- 아틀름 대학교 공대 박종이
-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유은미
- 에르지에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은숙, 이정혜, 유정숙
-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정은경, 조홍윤, 손영은, 양소영, 황승엽
- 마르마라대학교 음대 정현숙
- 코자엘리대학교 전자공학과 임현수
- 보아지치 대학교 역사학 홍현욱, 한국어 이화천

정부 표창장 수상자들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 중 정부 표창장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윤대우 대한민국 국무총리상

- 정지섭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장관상(1998)
- 김성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상(1999), 대통령 표창장(2005), 국무총리 표창장(2009)
- 조규백 대한민국 국무총리상(2010)
- 박용덕 대한민국 민주평통 자문회의 대통령 표창장(2010), 외교부 장관상(2010), 대통령 표창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4)
- 오수용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상(2010)
- 김상진 대한민국 민주평통 자문회의 산업자원부장관상(2013), 대통령 표창장(2019)
- 황규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상(2017)

12. 사건

사망 사건

- 2006년 3월 임지원씨 실종, 4월 4일 이스탄불 골든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 2019년 11월 19일 디야르바크르에서 김진욱씨의 강도 사망 사건이 있었다. 김진욱씨는 2017년 터키로 입국하여 사망 4개월 전 디야르바크르로 이주하였다.

13. 성과

제3다리

제3대교는 2016년 8월 현대건설(60%)과 SK건설(40%)이 합작 시공하였는데 이는 1973년 영국과 독일 건설사가 지은 제1교, 1988년 일본과 이탈리아 건설사가 지은 제2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동서양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다리 가운데 육지간 거리가 가장 먼 곳에 건설되었는데 2개의 주탑 높이만 하더라도 63빌딩(250m)을 훌쩍 넘는 322m로 제1교와 제2교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총연장 2,164m, 주경간(주탑간 거리) 1,408m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로서 세계 건설사에서도 최초의 사장교-현수교 복합방식이라는 진기록을

남기고 있다. 총 3년 2개월,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투입된 총길이 2164m, 주탑 높이 322m(아파트 100층 높이) 규모의 대규모 공사로서 1000m 이상 대형 교량의 공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축했으며, 공사기간 중 하루 평균 최대 1000명이 투입됐다.

사장교(斜張橋)는 사장케이블을 주탑에 바로 묶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방식이며 현수교(懸垂橋)는 주탑 사이를 잇는 현수케이블에 상판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리 가운데로는 기차가 다닐 수 있게 진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복합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제3대교는 사장교 규모로는 세계 1위, 현수교 규모 면에서도 세계 8위에 달하는 유례 없는 '현수사장교'로 탄생하게 되며 공정 또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현수교 부분은 현대건설이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울산대교에 적용한 케이블 가설장비 신공법을 적용해 시공했다. 조립식 평행선 스트랜드공법(PPWS)으로 알려진 이 공법은 비용 및 공기 단축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에 보스포루스 제3대교의 시공을 통해 유럽 건설사들의 독무대였던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동서양을 연결한다는 점과 함께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언젠가 부산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횡단기차가 건너게 될 아시아의 서쪽 끝이자 유럽의 동쪽 관문으로서의 터키에 우리 건설사들이 한창 쌓아올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다리는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듯 하다.



아브라시아 터널

2016년 12월 22일 SK 건설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용 복층터널인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해저를 관통하는 길이 5.4km 복층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공사에 착공해 4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사업비 12억 4000만 달러(약 1조 4700억 원)가 투입돼 터키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날 이스탄불 현지에서 열린 터널 개통식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 최광철 SK 건설 사장, 조운수 터키 주재 한국대사 등 양국 정부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저 100m 터널을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아브라시아 터널은 교통체증이

심한 이스탄불 도로 상황에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탄불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다. 하지만 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은 3 개뿐이고 운영이 자주 중단돼 교통이 많이 불편했다. 물론 지하철과 연락선이 있지만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다리를 선택한다. 유라시아 터널이 개통된 후 도로상황이 달라졌다. 2 시간 넘게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30 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한다.



차낙칼레 1915 교

한국의 SK, 대림과 터키 측 리막(Limak), 야피 머르케지(Yapi Merkezi)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 최첨단 현수교를 완벽하게 완공할 예정이다. `차낙칼레 1915 교'가 개통하는 2023 년은 터키 공화국 수립 100 주년이다.

현재 다다넬스해협에는 세계 최장 현수교가 될 차낙칼레대교를 건설 중에 있다. '차낙칼레 1915 교'는 길이 2,023m 으로 현재 1 위는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1,990m)'를 넘어선다. 기둥도 300m 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될 것이다. 건설 현장은 겨울에는 강풍과 눈보라가 심하고 리히터 규모 5 의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현수교가 이를 버틸 만큼 튼튼해야 한다.



터키 한인 역사

	태동기 1950-1988	도약기 1989 -2012	성장기 2013-현재
1 정부 관계	고아원 양카라 학원 설립 (1952) 영원불망의 송덕비 1954 국교수립 1957 양카라 대사관 설립 1957.3 양카라 한국 참전 용사 공원 조성 1973년 11월 용인 터키군 참전비 1974 여의도 양카라 공원 1977.5.1_ 이스탄불 총영사관 설립 1977.12.12,	노무현 대통령 방문 2005년 이스탄불 총영사관 재개설 (2007. 1. 15) 굴 대통령 방한 2010. 6.14(월)~16(수) 양카라 한국 문화원 설립, 2011년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방문 2012	수원 양카라 학교 공원 2013.6.25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방한 2018.05.0 2
2. 조직,기 관	한글학교 1988 한인회,한인교회 1989	참전용사기념사업회1999 터한문화교류협회 2002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원, 2011	기업인 연합회 2017
3 경제활동	병아리 감별사 1972 KOTRA 삼성전자 1984 대우무역상사 1985	섬유 1990 효성 1991 카스 1992 현대 1997 LG 2000 OKTA 2005	
4 문화 교류	유도 사범 파견 1970 태권도 조수세 파견 1973 한국 문화 예술인 1974 1985 김두만 사범	한터친선협회 1999 터한문화교류협회 2002년 터한문화교류협회 터키인 대상 한국어 과정 시작 2002 터한문화교류협회 한국인 대상 터키어 과정 시작 2007	이스탄불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2013년 9월 아일라 영화 2017 아다나 사설 문화원 메르신 사설 문화원 2014.11

5. 스포츠	유도 사범 파견1970 태권도(조수세) 1973 한국 문화 예술인 1974 (이효주) 1980년대 김두만 사범1985	김두만 1985 이을용 축구 선수 2002 김연경 배구 선수 2011- ,태권도한마당 2006	
6. 교육	유학생 백상기 1956 서재만 1966 한인 한글 학교 이스탄불 1988,	앙카라 대학교 1989 이즈미르 한글학교 1998 에르지예스대학교 2000 앙카라 한글학교 2004 세종학당 2011	이스탄불대학교 2016 한인 유치원 2016
7. 종교		한인 교회 1989 통일교 1990년대 초반 한인 카톨릭 성당 2007	이단 증가
8. 봉사		1999년 지진 구호 봉사 한인 심장 수술 환자 돕기 교회 바자회	
10. 관광		윤여행사 1986 한국식당 1986 한국 식품점 2009	
11. 교민	박재성 1949 입국 백상기 1956 서재만 1966 나주환 이영 1970 조수세 1973 김두만 1985	이용성 박사 취득	최한우, 이희철, 김종일, 김대성 이난아, 오은경 교수 정부 표창장 정지섭?, 박용덕 (민주평통 자문회의 대통령 표창장, 외교부 장관상) 오수용?, 황규인?,
12.시상		정지섭 산업자원부 장관상(1998) 김성렬 외교부 장관상(1999), 김성렬 대통령 표창장(2005), 국무총리 표창장(2009) 조규백 국무총리상(2010) 박용덕 민주평통 자문회의 대통령 표창장(2010), 외교부 장관상(2010) 오수용 행정안전부 장관상 2010	김상진 민주평통 자문회의 산업자원부장관상(2013) 박용덕 대통령 표창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4) 황규인 국토교통부 장관상(2017) 김상진 대통령 표창장(2019)
13.학위 취득	박원탁 혁명학 박사 1966	최한우 비교문화 및 지역학 박사 1989	최정숙 마르마라대학교 교육학? 박사 2013

<참고자료>

	서재만 정치학 박사 1973 이희수 역사학 박사 1988	김주찬 정치학 박사 1991 연규석 언어학 박사 1995 이난아 터키문학 박사 1997 이용성 터키어 박사 1998 안선애 회화과 박사 2004	
13. 사건		임지원 2006	디아르바크르 김진욱 님 2019
14. 성과			제3다리 2016 아브라시아 터널 2016 차낙칼레 대교 2023

경기일보 www.kyeonggi.com

경기도 현충시설 http://m.blog.daum.net/jink062/15672916?np_nil_b=1

경상북도청 <http://www.gyeongbuk.go.kr>

광주 in <http://www.gwangjuin.com>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972500>

도란도란수원 e 야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wonloves&logNo=1017111394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50601/8195265/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221/81979890/1>

디트news2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247>

서울특별시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207503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00615211700043>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5101500061>

<https://www.yna.co.kr/view/AKR20170525190000005>

용인종합뉴스 <http://www.ytnews.co.kr>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view/1050297>

주 터키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tr-istanbul-ko/wpge/m_8781/contents.do

주 터키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tr-ko/wpge/m_9226/contents.do

중동경제연구소 <http://hopia.net/kime/news/knw20.htm>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075131>

코트라 <https://www.kotra.or.kr/>

태권도 신문 <http://www.tk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3>

터키 여행 길라잡이 <http://blog.daum.net/turkhan/15526046>

터한문화교류협회 <http://www.koredernek.org/>

한국문화원 <http://tr.korean-culture.org/ko/6/contents/331>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021887427234>

해외문화홍보원 <http://kocis.go.kr/koreanet/view.do?seq=769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http://pa.go.kr/online_contents/diplomacy/diplomacy02_08_2005_08_01.jsp

한인회 <http://www.turkeykorean.net/>

news1 뉴스 <http://news1.kr/articles/?3359195>

News Wire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1746>

Ridibooks <https://ridibooks.com/v2/Detail?id=969000039>

yes24.com <http://www.yes24.com/24/AuthorFile/Author/117333>

<http://www.yes24.com/24/AuthorFile/Author/218886>